

포르투갈 건축미술기행

해리포터 서점, 지붕 없는 수녀원... '포르투갈 동화' 속으로

서울과 포르투갈 수도 리스본은 위도가 거의 같지만 유라시아 대륙의 동서 양극단에 떨어져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리스본에서 일생 대부분을 보낸 20세기 문학 거장 페르난두 페소아의 팬이 되거나 TV 예능으로 본 느리고 여유로운 삶의 모습에 반해 이곳을 찾는 한국인 방문객이 늘고 있다. 지난 9월에 대한항공의 서울-리스본 직항 노선이 개설되면서 이 도시는 한층 가까워졌다. 리스본에서 기차로 2시간 반(고속열차)에서 3시간 반(일반열차) 정도 걸리는 제2도시 포르투도 그렇다.

이 도시들에서 무엇을 하면 좋을까. 리스본에서 도시의 상징인 노랑색 푸니쿨라(케이블카에 가까운 전차)로 급경사 언덕을 오르내리고 원조 에그타르트를 맛보는 것은 신나는 일이다. 포르투에서 도루 강 다리를 걸어 건너며 강 건너 붉은 지붕 집들을 향해 카메라를 들면 어떻게 찍어도 아름다운 엽서 사진이 나온다. 두 도시 모두 바칼라우(염장대구) 같은 해산물 요리 맛이 기가 막히고 가격 대비 퀄리티가 탁월한 와인을 마음껏 마실 수 있다. 포르투에서는 달콤하고 향 깊은 포트 와인도 빼놓을 수 없다.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니다. 리스본에서 대항해시대의 영광을 드러내는 호화로운 마누엘 양식 건축물을 찾고 포르투에서 마치 청화백자 같은 도자기 타일 아줄레주가 붉은 성당들을 찾아다니면 훨씬 풍요로운 시각적 경험을 할 수 있다. 리스본의 굴베키안과 MAAT, 포르투의 세랄레스 같은 미술관들은 여행사 관광코스에는 없지만 세계 미술애호가들과 현지인들이 엄지손가락을 치켜올리는 곳이다. 중앙SUNDAY가 이들을 아우르는 리스본·포르투 건축미술기행으로 안내한다.

리스본 시내 중심가의 건축 풍경은 소박한 편이다. 포르투갈의 전성기인 15-16세기의 장려한 건축물은 1755년 대지진으로 거의 다 파괴되었고 그 후 도시가 재건될 때는 전성기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대항해시대의 영광을 보여주는 몇 안 남은 건축물은 테주 강이 바다와 만나는 리스본 서부의 벨렝 지구에서 찾아야 한다. 백기는 단연 제로니무스 수도원이다. 시내 중심가의 피게이라 광장에서 트램 15E번을 타고 30분 쯤 가면 된다. 바로 근처에 수도원에서 원조 에그타르트의 레시피를 전수 받은 유명한 베이커리 '파스테이스 드 벨렝'이 있다.

대항해시대의 영광, 리스본

100년 걸려 지은 제로니무스 수도원 천장은 고딕, 구조는 르네상스 양식 발전소 개조한 미술관, 새 랜드마크 벽과 아치뿐인 카르무 수녀원 인기

요새이자 관문인 벨렝 탑 또한 16세기에 마누엘 양식으로 지어진 아름다운 건축물이다. 길고 고된 항해에서 살아 돌아온 선원들을 가장 먼저 환영해주는 '테주 강의 귀부인'으로 불린다. 또한 근처 강변에는 거대한 석조 '발견기념비'가 있는데 범선에 올라탄 역대 해상 탐험가들의 조각 군상이 탑과 결합된 형태다. 15세기 '항해 왕자' 엔히크의 500주기를 기념해 1960년에 완공되었는데, 조각 군상의 맨 앞에 서있는 것이 바로 엔히크다.

발견기념비에서 강변 풍경을 즐기며 20분 쯤 걸으면 거대한 붉은 벽돌 건물을 만나게 된다. 예전에 발전소였던 곳이다. 이어서 은백색 금속 타일로 뒤덮인 외벽이 곡선으로 물결치는 미래적 건축물을 만나게 되는데, 영국 건축가 아만다 레빗이 설계한 것이다. 이 두 건물이 2016년 개관한 현대미술관



리스본의 새 랜드마크로서 테주 강변을 바라보는 현대미술관 MAAT. /문소영 기자



16세기 대항해시대의 영광을 보여주는 제로니무스 수도원.

'예술·건축·기술박물관(MAAT)'을 구성한다. 발전소를 개조한 영국 런던의 유명 미술관 테이트모던을 연상하게 하는 곳이다.

미술관 전시도 불만할 뿐만 아니라 언덕 형태의 은백색 건물 옥상을 걸어다니며 보는 풍경이 압권이다. 바다 같은 테주 강과 길다랗고 붉은 현수교

'25 드 아브릴'(1974년 카네이션 혁명이 일어난 4월 25일을 의미)의 모습은 물론, 강 건너 까마득히 거대 예수상 '크리스투스 헤이'를 볼 수 있다. MAAT는 아직 한국 여행자들은 잘 모르지만 미술 애호가들은 입을 모아 추천하는 리스본의 새로운 랜드마크다.

굴베키안 미술관, 모네 등 유럽 명화 다수

그러나 리스본에서 가장 유명한 미술관은 따로 있다. 시내 신시가지에 있는 굴베키안 미술관이다. 관광지가 몰려 있는 구시가지 바이사에서 갈 경우 지하철 블루 라인(AZ)을 타고 15분만 가면 된다. 아름다운 정원으로 둘러싸인 모더니즘 건축물 여러 동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크기는 사업가 칼루스트 굴베키안의 개인 컬렉션을 전시하는 본관과 동시대 미술 전시가 열리는 분관인 '현대미술센터(CAM)'로 구성된다.

아르메니아계인 굴베키안은 석유 사업으로 쌓은 엄청난 부를 바탕으로 1955년 타계할 때까지 고대 이집트·그리스 유물부터 19세기 유럽 인상주의 회화까지 6000여 점에 달하는 문화재와 미술 작품을 수집했다. 그 컬렉션을 바탕으로 1969년 문을 연 것이 이 미술관이다. 특히 이슬람 예술과 굴베키안의 뿌리인 아르메니아 예술, 중국 채색 도자기, 유럽 로코코 가구 컬렉션이 인상적이다. 렘브란트·루벤스·터너·마네·모네·르누아르 등 유럽 거장들의 회화 컬렉션도 볼 만하다.

분관인 CAM(1983년 개관)에서는 동시대미술 전시가 열리는 가운데 지하의 '열린 수장고'에서 20세기 전반 포르투갈 화가들의 작품을 집중적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문학 거장 페소아의 책 표지에 단골로 등장하는 그의 사후 초상화가 이곳에 있다.

/문소영 기자 symoon@joongang.co.kr <광주일보와 중앙SUNDAY 제휴 기사입니다>

유럽식 청화백자의 향연

'포르투의 서울역'인 상 벤투 역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아줄레주(azulejo)'라고 불리는 도자기 타일의 향연을 만나게 된다. 흰 바탕에 푸른 그림이 그려져 있어 마치 청화백자 같은 타일 2만여 개가 역 내부를 온통 뒤덮고 있는 것이다. 여러 개의 타일이 모여 포르투갈 역사의 주요 장면들을 묘사하는데, 20세기 초 대표적인 아줄레주 도안가였던 콜라수의 작품이다.

또한 상 벤투 역과 마주 보는 몽그레가투스 성당을 비롯해 여러 교회 건축물이 아줄레주로 장식된 파사드(정면 외벽)를 지니고 있다. 목직하고 거친 화강암 외벽이 청아하고 매끄러운 청화백자(?) 타일과 어울린 모습이 무척 독특하다. 포르투의 명소인 알마스 예배당처럼 외벽이 온통 아줄레주로 뒤덮여 청화백자로 만든 집처럼 보이는 곳도 있다. 학자들에 따르면, 유럽인들은 16세기부터 수입된 중국 청화백자에 열광했고 도기 제품을 만들 때 이 '수입 명품'을 흉내내는 게 17세기부터 유행이었는데, 아줄레주도 예외가 아니었다고 한다.

그러나 모든 아줄레주가 청화백자 같은 것은 아니다. 일반 집들은 다양한 색깔과 기하학적 무늬의 아줄레주로 덮여 있다. 그 명칭이 '광택 나게 닦인 돌'을 뜻하는 아랍어에서 기원한 것처럼 원래 아줄레주는 중세에 이베리아 반도 남부를 차지했던 이슬람인들의 건축, 특히 알함브라 궁전의 모자이크 장식에서 영감을 받아 탄생한 것이다.

포르투의 또다른 건축·미술 명물은 클레리구스 종탑과 '해리 포터 서점'으로 불리는 렐루 서점이다. 둘 다 상 벤투 역에서 도보로 10분 거리 안에 있다. 종탑은 클레리구스 성당의 부속 건물로서 18세기 중반에 바로크 양식으로 화려하게 지어졌다. 높이 76m로 아주 높은 것은 아니지만 성당 자체가 높

아줄레주의 도시, 포르투

17세기부터 청화백자 타일 유행 해리포터 작가, 렐루 서점서 영감 동 루이스 다리는 철골 매력적

은 언덕 위에 있기 때문에 포르투 전반을 굽어볼 수 있는 탁 트인 전망을 자랑한다.

19세기 중반에 생기고 20세기 초에 현재 건물에 들어선 유서 깊은 렐루 서점은 당대에 유행한 네오 고딕(Neo-Gothic)과 아르누보(Art Nouveau) 양식이 혼합된 아름다운 파사드와 인테리어로 유명하다. 서가와 난간의 뾰족한 아치, 천장의 스테인드 글라스 채광창 등은 네오 고딕 스타일이며, 중앙 계단의 우아한 곡선과 여기저기 보이는 식물 모티프는 아르누보 스타일이다.

다만 관광객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 아름다움을 찬찬히 살펴보기 힘들다. '해리 포터' 시리즈의 저자 조앤 롤링이 한때 포르투에 살았는데 소설 속 마법학교 호그와트의 묘사와 영화 버전의 장면들이



포르투의 도루 강과 동 루이스 다리(위)와 해리 포터 서점으로 유명한 렐루 서점의 중앙 계단. /문소영 기자

렐루 서점의 인테리어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소문이 났기 때문이다. 서점은 관광객을 제한하기 위해 입장료 8유로(1만2000원)를 받고 대신 책을 구입하면 책값에서 입장료만큼 깎아준다.

렐루 서점과 비슷한 시대의 건축 명작으로 동 루이스 다리(1886년 완공)도 있다. 상 벤투 역에서 남쪽으로 10여 분 걸으면 포르투를 동서로 가로지르는 도루 강과 동 루이스 다리를 만나게 된다. 다리의 우아한 절곡 아치를 보면 파리의 에펠 탑이 떠오르는데, 실제로 귀스타브 에펠의 제자였던 테오 필 세이리그가 설계했다. 재미있는 것은 에펠 자신도 이 다리 설계 공모에 도전했지만 제자인 세이리그가 스승을 이겼다는 것이다. 다리는 2단으로 되

어 있으며, 상단은 도보나 트램으로, 하단은 도보나 자동차로 건널 수 있게 되어 있다.

다리를 건너 알록달록한 건물에 벽화가 그려진 운치 있는 골목을 지나면 테일러·그라함(그림) 등 유명 포트 와인 하우스의 셀러(저장고)들이 모인 곳에 도착한다. 지난 수백 년 동안 포르투는 영국에 포르투갈 와인을 수출하는 교두보였는데 와인 오렌 수송에 변질되는 걸 막기 위해 발효 중에 브랜드를 섞기 시작한 게 포트 와인의 유래다. 맛이 달콤하면서도 향이 깊고 알콜 도수도 18~20% 정도로 높아 디저트에 곁들이기 좋다. 셀러 투어를 하면 시음도 할 수 있다.

/문소영 기자 symoon@joongang.co.kr

